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주변화 담론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이용균*

The Place Occupation and the Marginalization Discourse of Migrants: the Case of Chinese Food Culture Street in Jayang-dong in Seoul

Yong Gyun Lee*

요약 : 글로벌화와 초국가주의 시대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 내 한국인 상가를 대상으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형성에 대한 지배집단의 주변화 담론을 살펴보았다. 중국음식문화거리는 일부 한국계중국인들이 가리봉-대림 일대와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한국계중국인의 새로운 민족경계에 기반한 공동체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양동 일대로 집중되는 것에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가 확대되면서 주류사회는 한국계중국인을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타자로 위치시키며, 무분별한 집중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가능성을 없애는 존재로 주변화시킨다. 이러한 한국계중국인의 주변화는 진정한 로컬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데, 중국음식문화거리의 조성에 따라 주변 환경의 개선과 이미지 제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류사회의 이주자 주변화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따른 결과이며, 향후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로컬의 변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 : 이주자, 한국계중국인, 주변화, 중국음식문화거리, 지역쇠퇴 담론

Abstract :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oint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ism is the movement of people, namely migration. This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discourse of marginalization on Korean-Chinese by Korean merchants as the migrants expand their shops in the Chinese Food Culture Street. The Chinese Food Culture Street has been formed by Korean-Chinese restaurants and shops for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from the Garibong-Daelim area. Korean merchants in the street are not opposed to the influx of Korean-Chinese into Korea, however they do not want to the influx of them into the Jayang area.

As the influx of Korean-Chinese into this street has increased, so the Korean merchants in the street have marginalized them as dangerous element for local security, as immoral beings cling to their business, and as the main reason for the regional underdevelopment. However, this marginalization of Korean-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11-330-B00211)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연구교수(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yonggyun-lee@ewha.ac.kr)

Chinese make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eal change of local area, because there has been some positive effects by the influx of them such as the improvement of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elevation of local imagination. This research clearly suggest that the marginalization of migrants by major society is from the fixed idea and prejudice, and this research suggest the need to further study on the occupation and change of local by migrants.

Key Words : migrants, Korean-Chinese, marginalization, Chinese Food Culture Street, regional under-development discourse.

1. 서론

최근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화와 함께, 이주자에 의한 글로벌화로 인식되는 초국가주의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담론에서는 국가 영역으로부터 탈중심화 되는 사회적 과정에 초점을 두며, 초국가주의에서는 국민국가의 영역을 넘어서는 민족 중심의 사회적 관계의 연결성에 초점을 둔다(남영호 외 역, 2010). 글로벌화와 초국가주의 시대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동(mobility)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이주(migra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용균, 2013).

201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이주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결혼이주자의 확대에 따른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사회 스스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는 우리사회의 특성을 대변하는 키워드로 인식되었고, 정부 정책과 미디어를 통해 다문화는 현 사회가 지향할 새로운 사회적 목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김이선 외, 2007).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단일민족에 의한 동질문화의 가치를 추구하던 사회에서 다수의 소수자 문화가 포함된 사회로의 변화로 인식되었다(황정미 외, 2007). 우리사회가 목격한 급격한 이주자의 증가는 서구에서 전개된 다문화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

는 소수자보다는 이주자, 특히 결혼이주자에 초점을 두면서 전개되었고, 이주자를 위한 사회정치적 배려가 추진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이주자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주자를 위한 정의와 분배 차원의 다문화 추진은 한계를 보였고, 이주자가 우리사회의 문화와 가치 속으로 포함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었다(박경환, 2008; 이희은, 2011; 정의철, 2010; 최병두, 2009; 최종렬, 2009).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논의와 담론이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면은 있었으나, 이보다는 우리사회가 성장과 발전 중심의 담론을 강조하면서 이주자를 배려하는 다문화 담론이 성숙될 여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사회는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 의해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김병조 외, 2010), 이 과정에서 저개발국가로부터의 노동이주자와 결혼이주자는 타자화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주자의 유입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주자는 주류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주류사회로부터 위협한 존재로 주변화되거나 타자화 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이영민 외, 2012; Gilmartin, 2008; Samers, 2010).

최근 이주자의 타자화와 주변화에 대한 연구가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서 주목을 받고 있

으나(박경태, 2008), 실제로 이주자의 장소와 로컬리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김민영·류연택, 2012; 류주현, 2012; 정현주, 2010; 최병두 외, 2010).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계중국인(조선족)¹⁾의 장소 점유의 과정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로부터 한국계중국인 이주자가 어떻게 주변화 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이로 인한 로컬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로컬에 뿌리를 내리는 한국계중국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원주민 상인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이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포용과 배제 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 내 원주민 상가를 대상으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와 담론이란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원주민 상인들의 이들에 대한 포용과 배제는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며, 한국계중국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주변화 되고 타자화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12년 4월-6월까지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에 위치한 166개의 원주민 상가 중 41개 상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에 기초하고 있다. 원주민 상가에 대한 인터뷰는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모든 자료는 녹음과 녹취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계중국인 상가에 대한 인터뷰와 현장조사가 병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주민(한국인) 상가에 대한 인터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양동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기간 동안(2012년 4-6월) 원주민 상인들이 보는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 결과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한국계중국인의 특성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이곳 원주민 상인의 견해를 전체 한국인의 태도와 관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2.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주변화 담론

1) 이주와 장소 점유의 정치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이주 연구에서는 장소의 중요성을 다소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용균, 2013). 초국가주의 연구에서는 국경을 초월하여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사회적 장(social field)에 관심을 두면서 이주자가 정착한 로컬의 변화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Jackson, 2003). 즉, 초국가주의 이주 연구에서는 출신지역과 정착지역 간 이주자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고, 이주자가 정착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로컬리티의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초국가주의 이주 연구는 이주자에만 초점을 두면서 이주자-원주민의 관계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에 의한 연결성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지구·지방화 시대에 이주자는 다양한 로컬과 연결되면서 초국가적 수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주자는 정착지의 환경에 단순히 동화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출신국가와 정착지역의 다양한 로컬리티에 동시에 연결되는 트랜스로컬리티(translocality)의 특성을 나타낸다(Brickell and Datta, 2010). 트랜스로컬리티는 이주자의 초국가적 실천을 보여주는 주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트랜스로컬리티 접근에서는 이주자의 다양한 로컬리티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이주자가 정착한 로컬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이용균, 2013; 정현주, 2010).

이주자가 초국가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컬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남영호 외, 2010; Dahinden, 2010).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는 장소에 토대를 두면서 형성되고 작동하는데(Gielis, 2009), 이 과정에서 이주자는 장소를

점유하게 되고 장소의 특성을 변형시키게 된다. 투안은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장소는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식임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장소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그 의미가 창조된다(구동희·심승희 역, 1995). Anderson(1991)이 밴쿠버의 차이나타운이 백인 중산층의 중국인 차별에 의한 결과임을 주장하였듯이 이주자의 공간은 지배집단의 차별에 의해 의도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의 일상생활은 본질적으로 권력관계를 갖는데, 권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흔적을 변형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장소의 변형으로 나타난다(Anderson, 2010).

비록, 이주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을 반영하나, 지배집단이 이주자의 공간으로 허락한 곳에서만 이주자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발전한다. 즉, 이주자 집적지역은 지배집단이 특정 지역으로 이주자를 집중하도록 하는 권력 관계의 결과이며, 이는 지배집단이 형성한 이데올로기와 담론의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은 지배집단이 부과하는 질서에 자발적인 동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지배적 질서를 전복한다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Anderson, 2010).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 형성은 결과적으로 한 장소에서 특정한 문화가 나타나고 성장하는 토대가 되며, 도시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이주자를 집중시키고 개발을 제한하며, 지배집단과 이주자 집단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이주자 집단은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장소를 점유하면서 민족경관(출신국의 물질문화)을 토대로 장소를 만들어 간다.

이처럼 지배집단의 헤게모니, 이데올로기와 담론은 결국 특정 장소로의 이주자 집증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주자는 원주민과의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주자와 원주민과의 갈등은 로컬에서의 지리적 경계가 발생되고(이주자

가 장소를 점유하거나 원주민의 압력에 의해 이주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 이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관계가 작동된다(Anderson, 2010).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자는 엔클레이브(enclave)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깃든 장소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초기 무슬림 이주자들은 무주택자 임시 주택단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이주자의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과 마찰이 발생하고, 결국 원주민이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인종별로 분리된 거주지역이 조성되게 되었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9월호). 이처럼 프랑스에서 이주자의 밀집지역은 지배집단으로부터 배제된 공간에 이주자가 집중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이주자의 사회경제적 관계가 생성되고 발전되면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이주자의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이주자는 일상생활을 통해 특정한 로컬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로컬의 특성을 변형시키게 된다.

2) 이주자의 주변화

이주자는 주류사회에서 타자로 범주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계층, 젠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는 동질적 존재로 간주되면서 주변화와 배제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Gilmartin, 2008). 이는 전통적으로 이주연구에서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개인보다는 국민국가라는 단위에서 해석되고 설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chiller and Caglar, 2009). 이와 같은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는 민족을 공통된 사회적 규범을 갖는 주체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²⁾

이주자는 시민권의 부여 과정에서 타자로서의 삶을 경험하며, 시민권 부여 이후에도 차별의 대

상이 된다. 이주자에 대한 차별은 주류사회의 목인과 권력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용일, 2009). 이와 같은 이주자의 차별을 완화하고자 각종 다문화 담론에서는 정의와 분배의 정치, 인정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최병두, 2009; 최병렬, 2009). 그러나, 이주자를 관용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정의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가 아닌 관리의 대상이란 의미를 내포하며, 관용의 대상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지배집단의 타자로 인식될 수 있다(박경환, 2008; 이희은, 2011).

미디어는 지배집단이 이주자를 타자화시키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는 사회의 고정관념, 편견, 차별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각종 차이를 강조하면서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하기도 한다(정의철, 2011). 대중매체의 부정적 이미지는 이주자를 가난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온 사람으로 인식시킨다. 물론, 미디어는 이주의 확대, 문화의 혼성, 다문화 사회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 폭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주류 미디어는 이주자를 관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주류의 동질문화와는 다른 것으로 타자화 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Ehrkamp, 2006). 이처럼 주류미디어는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주자 담론을 형성하면서 이주자는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잠재적 위험인물로 묘사되면서 지배집단 중심의 사회 건설 이미지가 재생산된다.

소수인 이주자가 사회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파두라이에 의하면, 전 지구화된 세계에서 소수자는 경계를 흐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류사회로부터 위험한 존재로 분류된다(장희권 역, 2011). 소수인 이주자가 사회적으로 두려운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주자의 사회의 구성과 장소의 실천이 주류사회가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주류사회는 이데올로기로

서 규정된 특성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심승희 역, 2012). 주류사회는 이주자가 특정 장소에 정착하여 장소를 점유하면서 이주자의 민족경관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장소의 실천이라 인식하지 않는 데, 이주자의 장소 점유는 지역에 대한 좋지 않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면서, 낙후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류사회는 이주자의 장소 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 실천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면서 이를 지역쇠퇴 담론과 결부시키고 결국은 타자의 공간으로 범주화 시킨다(Anderson, 1991). 이주자는 주류사회의 이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발전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이주자의 범죄는 과장의 과정을 거쳐 주류사회의 우려 요소로 재생산된다. 이주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주류사회의 이상을 실천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아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며, 이주자의 문화는 주류문화의 가치와 실천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년 9월호). 이탈리아의 북부지역 원주민들은 소득이 낮은 남부지역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남부지역은 다양한 유색 인종의 진원지로서 북부 이탈리아의 문화적 결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심승희 역, 2012).

이주자의 타자화 담론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점은 고정관념에 의한 사회담론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재해석하고 해체하는 것일 것이다. 정해진 동질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비교에서 동질성이 부상하며,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차이(다름)은 극복되거나, 관용이 필요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차이란 스스로 주체성과 생명력을 지닌 비교의 대상일 뿐 차이의 존재 자체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주자는 인종, 민족, 직업, 젠더 등에서 차이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주자에 대한 인종주의적 접근은 악한 것이고 다문화 접근은 선한 것이라는 사회담론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는 지배집단과 소수자의 권력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권은, 2010; 박경환·진종현, 2012).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주의 증가는 글로벌 경제와 자본에 의해 주도 되었고, 이주자의 타자화는 지배집단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실천에 의해 주도 되었는데,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긴장은 이주자와 주류사회의 하층계급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주자가 사회적으로 타자화 되는지에 대한 맥락과 상황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3.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와 장소 변화

1)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

한국계중국인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으로의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국에 거주하던 한국계중국인의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였으며, 한국계중국인이 밀집한 연변지역에만 약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김화선, 2011). 연변조선족자치주가 형성될 때 한국계중국인의 인구비율은 약 60%에 해당하였으나, 한국으로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현재 그 비율은 약 30%로 감소하였다. 현재 연변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한국계중국인의 인구유출에 의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 마을의 해체, 전통적 가치의 훼손, 연변자치주의 해체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김화선, 2011; 이민호, 2012).

2011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125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은 982,461명 이었으며, 이 중 한국계중국인은 389,398명 이었다(법무부, 2011). 한국계중국인

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결혼이주와 노동이주를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불법 체류를 포함한 미등록 인원을 감안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계중국인 수는 등록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계중국인은 한국으로 이주한 숫자도 많지만, 특정 장소에 집중되면서 로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영민 외, 2012). 한국계중국인은 서울(46%)과 경기(35%)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특히 영등포구(9.8%), 구로구(7.3%), 안산의 단원구(5.6%)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다(이용균·이현욱, 2012). 서울에서 한국계중국인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가리봉-대림동 일대이며, 다음으로 많은 곳이 자양-화양동 일대이다. 2011년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자양-화양동 일대의 등록 한국계중국인의 수는 5,523명에 이른다. 자양4동에는 2,770명의 한국계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계중국인은 왜 자양-화양동 일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왜 중국음식문화거리에 한국계중국인 식당이 집적되는가? 중국음식문화거리가 위치한 자양동 동일로 18길 주변에는 대학, 쇼핑센터, 지하철역(2호선과 7호선), 고급 아파트, 노후된 주택, 소규모의 공장이 등이 위치하고 있다. 자양동과 화양동 일대는 저가의 임대 가능한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단기간 체류를 원하는 이주자로서의 한국계중국인이 거주하기에 용이하였다. 또한, 주변에 성수동의 공장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다른 곳과의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한국계중국인의 집중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로 18길 일대는 1980년대부터 식당이 밀집된 곳이었다. 성수동 일대에 밀집되었던 중소규모 공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식당들이 공장이 폐업하거나 종업원이 감소하면서 식당도 하나 둘 문을 닫게 되었다. 동일로 18길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식당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던 식당을 한국계중국인이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었다. 2002년부터 한국계 중국인 식당이 입지하기 시작하여 2009년 최고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동일로 18길의 226개의 상가 중 60개가 한국계중국인 상가이다(이영민 외, 2012). 동일로 18길을 따라 한국계중국인 식당이 밀집되자 광진구는 이곳을 중국음식문화거리 일명 양꼬치거리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곳이 중국음식문화거리로 조성된 배경에는 가리봉-대림 일대와 차별화를 원하는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영민 외, 2012).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일부는 자급력을 바탕으로 가리봉-대림 일대와는 이미지가 다른 새로운 공간을 원하였고, 결과적으로 자양동 일대에서 경제활동을 추구하게 되었다. 자양동 일대는 가리봉-대림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조용하며, 주변에 대학과 대형 쇼핑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다수의 한국계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계중국인의 새로운 경제공간으로 적합하다고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중국인들은 대림동에 비해 자양동 일대는 안정하고 깨끗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준다고 보고 있다. 비록 한국사회의 시각에서는 대림동과 자양동이 비슷할 수 있으나, 한국계중국인들이 느끼는 장소감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대림동이 모든 한국계중국인을 위한 경제활동의 공간이라면, 자양동은 보다 잘사는 한국계중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공간이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부 한국계중국인 식당은 가리봉-대림동의 체인에 속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화교들이 비슷한 업종 간 확대를 통해 민족경제를 확대 하듯 한국계중국인도 비슷한 형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분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이영민 외, 2012). 가리봉-대림동이 한국계중국인의 초기 정착을 위한 교두보로 작용했다면, 자양동은 한국계

중국인 중 계층 간 차별화를 추구하고, 중국인보다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상권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유입에 의해 주변 경관은 크게 변화하였는데, 중국어 간판이 동일로 18길을 따라 즐비하게 들어섰고, 양꼬치 식당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거리의 전반적 모습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의 변화는 주변 원주민 상인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우려를 낳고 있는데, 한국계중국인의 증가는 한국인의 주권 상실과 사회의 위험 가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발전의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는 피해담론도 대두되었다.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입지에 따른 로컬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먼저 중국음식문화거리 내 원주민 상인들의 외국인과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장소 변화의 지배 담론

중국음식문화거리 내 한국인 상인 41명 중 34명은 한국사회의 외국인 유입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외국인의 유입과 외국문화의 유입은 자연스런 현상이며, 세계화의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유입과 문화의 혼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에 해당하는데, 외국인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전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지향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자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60대 이상의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외국인 유입 자체를 싫어하고 있으나, 50대 이하의 연령에서 외국인의 유입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은 우리사회에서 연령에 따른 타문화에 대한 수용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60대 이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익숙했던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이처럼 외국인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대체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³⁾

이처럼 대다수의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으로 외국인과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을 글로벌화의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한국계중국인의 자양동의 중국음식문화거리 내에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님비즘(Nimbyism)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국계중국인이 같은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언론과 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한국계중국인의 문화는 한국문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음식문화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계중국인의 음식을 우리나라의 음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의 음식으로 인식한다. 한국계중국인의 음식을 또 다른 한국음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음식으로 인식한다는 자체가 원주민 상인들의 강한 반감을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만이 한국계중국인을 우리와는 다른 타자로 인식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연구자: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요즘 추세가 다 그러니까...들어와도 괜찮지. 추세가 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

연구자: 여기가 중국 조선족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구술자: 차이나타운이 됐잖아요.

연구자: 이렇게 차이나타운으로 바뀐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불만이지, 당연히 불만이지.

연구자: 어떤 점이 불만이세요?

구술자: 이게, 완전히 중국놈들 판이니까. 뭐, 우리로서는 당연히 살 수가 없지. 음식점이 뭐, 입에

맞어, 뭐, 전부다. 한국사람이 거의 없드시피, 식당 같은 게 다 없어졌잖아.

연구자: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구술자: 그래, 있던 게 다, 중국거리가 된 거지. 다문 화고 뭐고, 다 불편하지, 한국사람에게...

하지만, 원주민 상인들에 의한 한국계중국인의 타자화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주민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들의 유입에 의해 상점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유입에 따라 상점의 수익이 감소한 상인들은 이들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의 원주민 상인들에게 한국계중국인이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주변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어도 상관없다고 행동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유입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원주민 상가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있었는데, 이러한 임대료 상승이 한국계중국인의 교양 부족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인에게 월 40만 원에 해당하는 가게가 한국계중국인에게는 월 50만 원의 조건으로 제공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계중국인 상점들은 집적을 통한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이기주의적 태도 때문에 가게 임대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일부 원주민 상인들은 이러한 한국계중국인의 태도를 교양 부족에 기인한 먹고 살기에 근거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해석한다.

상당수의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은 중국음식문화거리가 위험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 장소는 낮에는 안전공간, 밤에는 위험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위험공간으로 인식하는 주된 이유는 술 먹고 싸우는 한국계중국인이 많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한국계중국인의 집중은 장소

의 문화적 동질성을 저해시키고, 거리의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장소의 치안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인식한다.

연구자: 중국거리가 조성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너무 집중되니까 혼란스러워요. 중국 사람들이 억세고, 자기들 편할 대로만 생활하고 주의를 주면 오히려 공격적이고. 술 먹고 싸우고 하면 한국인들은 저리 가라예요. 병으로 찌고, 칼 들고 싸우고, 치안이 안 좋아졌어요.

(A38, 40대 남성)

이러한 한국계중국인 상인들에 대한 반감은 전체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표적 방법은 이들을 도덕성이 없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계중국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한 방에서 서로 모르는 남녀가 동거하고, 서로 즐기다가 때가 되면 헤어지는 비도덕적인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의 지배집단이 피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도덕적 타락을 내세웠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이영민·박경환 역, 2010). 즉, 소수자를 도덕적 타락과 동등하게 위치지우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려는 지배집단의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에 대해 제 3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이들의 태도는 한국계중국인 유입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유입에 따른 좋은 점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 형성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일반인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반영한다.

4. 지역쇠퇴 담론과 한국계 중국인의 주변화

1)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와 지역쇠퇴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는 주변의 한국인으로부터 진보적 장소감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사회의 이주자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한국계중국인도 자신들의 문화적 향수를 공유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가 증가하면서 연민의 정서가 불쾌감과 불안감의 정서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주민들은 한국계중국인들을 강압적으로 떠나게 할 수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떠나주었으면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한국계중국인 상가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나타났다. 이주자가 정착지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생존을 위한 지배집단과의 투쟁이 내재되어 있고, 이주자는 강한 민족 중심의 네트워크를 통해 장소를 만들어 간다(Mitchell, 2000). 이주자가 민족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특정 장소에 집중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주류사회에 쉽게 편입되지 못하는 한국계중국인은 자양동에서 식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토대를 구성하고, 다른 한국계중국인과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계중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기 때문에 원주민 상인들은 이들과의 경쟁이 힘들다고 느끼며, 차츰 이들에게 밀린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음식문화거리 내에서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이들로 인한 피해담론이 생산되고 확대된다. 이러한 피해담론은 한국계중국인에 의

한 장소의 잠식으로 확대 해석되는데, 이는 안산시 원곡동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안산시 원곡동의 원주민들은 지역개발의 정체가 이주자의 유입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특히 한국계중국인의 대량 유입이 지역개발의 정체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이부미, 2011). 한국계중국인에 의한 장소 점유는 거주 영토의 주권을 뺏기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권은, 2010). 이와 같은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와 이로 인한 피해담론은 원주민 40대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연구자: 이곳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구술자: 중국인들이 떠나야 하는데(웃음). 그건 불가능하잖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각을 해야 하는데, 이젠 중국 사람들이 시장까지 파고들었다니까. 예전엔 우리가 끼리는 동네에만 중국인이 살았는데, 이제는 2층 전세를 얻어놓고, 화려한 벽지를 발라놓고, 자기들 스타일대로 그러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밀리는 느낌, 당하는 느낌... 그리고 몰려 다니고, 엄청 시끄럽고, 싸우고... 자꾸만 우리나라가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의해 잠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A28, 40대 여성)

원주민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는 지역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한다. 한국계중국인은 값싼 주거지를 원하기 때문에 노후된 주택의 임대를 원하고, 주택의 소유자는 임대를 원하는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노후된 주택의 개량을 원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은 지역 쇠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데,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은 안전했던 지역을 우범지역으로 변화시켰고, 결국은 정부의 지역개발

계획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배제의 공간으로 상상한다.

연구자: 여기서 오랫동안 사업 하셨는데, 조선족의 유입에 따라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술자: 이제 발전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저거들(조선족)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니까 중국인(조선족)이 구로동이나 영등포, 그 쪽에 많은데, 영등포에도 굉장히 변화가가 많지만,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 쪽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중국인(조선족)들이 많이 가서 상권이 형성된 곳은 개발이 안 돼요...여기가 강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하방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는 것도 많아요. 한국사람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를 중국사람(조선족)들이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소화를 해줘요...열악한 방들을 그 사람들이 소화를 해줘요. 그런 게 안 나가면 주인들이 리모델링 하겠죠. 깨끗하게 방을 놓기 위해서. 근데 그게 소화가 되니까, 그냥 두니까 주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는 거예요. (A27, 40대, 남성)

중국음식문화거리의 조성으로 거리는 예전보다 깨끗해졌고, 방문하는 사람도 예전보다 많아지면서 보다 활기 찬 거리가 되었다. 이곳을 방문하는 일반인에게는 특이하고 색다름을 추구하는 공간이지만, 원주민은 이곳이 점점 살기 힘든 곳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특성은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개발과 정비를 통해 과거보다 주변 경관이 정비되었지만, 과거의 거주자였던 노동자 계급은 예전의 동질적 유대감을 그리워하면서 과거보다 못한 장소가 되었다고 비판한다(심승희 역, 2012).

이와 같이 이주자의 장소 점유에 의한 로컬의 변화는 지역 원주민에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지

는데,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장소의 발전이 아닌 이주자의 유입이 있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낯선 환경으로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낯선 이방인에 의한 장소 점유는 원주민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계중국인은 지역발전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계중국인은 어떠한 맥락에서 주변화되고 있으며,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에 따른 로컬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한국계중국인의 주변화와 로컬의 변화

원주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한국계중국인을 만나고 접촉하면서도 이들을 이방인으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계중국인들이 주변 주택가에 집중되는 현상을 외국인에 의한 장소의 잠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한국계중국인이 주변화 되는 현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상황에 따라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주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원주민 상인들은 상황에 따라 한국계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중국인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한국계중국인을 외국인(중국인)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방문 노동자'라는 인식이다. 즉, 한국계중국인은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방인이자 외국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계중국인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답게 살아가기 보다는 자신의 문화를 내세우면서 배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 방문한 한국계중국인은 왜 이방인이자 외국인으로 인식되는가? 여기에는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싫음과 혐오가 작동한다고 판단되는데, 한국계중국인을 자신들의 삶과는 다른 존재로 차별화 시키려는 원주민 상인들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계중국인 상인들은 쉽게 주변화 될 수 있는데, 주변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여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계중국인이 외국인으로 주변화 되는 것은 국적에 따른 원주민 상인들의 범주화가 작동하고 있다.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의 원주민 상인은 한국계중국인을 중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역사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데, 중국과 북한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인은 공산주의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계중국인이 중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면, 이는 한국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된다.

연구자: 조선족은 한국인이라 생각하세요?

구술자: 글썄요. 그건 참, 당연히...그 사람들도 외국 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인은 아니죠? 한국 국민은 아니잖아요? 한국인은 아니죠!
(A19, 50대 남성)

한편, 한국계중국인이 한국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역사에 근거하는데, 역사적으로 한국인의 후손이라고 인식된다. 이처럼 역사에 근거했을 때 한국인이라는 동질감이 형성되고, 한국계중국인의 이주 역사는 가슴 아픈 기억으로 그리고 연민의 대상이 된다.

연구자: 조선족은 한국인이라 생각하세요?

구술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자: 혹시, 그 이유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구술자: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이쪽에 살다가 이주했잖아요. 옛날에...옛날에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어쩔 수 없이, 역사적 아픈 장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이쪽에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한국인이라 생각해요. 다른 외국인들보단 조금 더 동질감

같은게 조금 더 있다고 봐야죠.

(A21, 30대 남성)

연구자: 조선족은 한국인이라 생각하세요?

구술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단 핏줄이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줄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문화적으로 내지는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뿌리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같다고... 뭐.

(A25, 30대 남성)

이처럼 한국계중국인이 한국인이라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역사에 근거한 해석에 따른 경향이 있었으며, 중국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국적이나 정치적 현실에 따라 해석하고 있었다. 원주민 상인들에 의한 한국계중국인 주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계중국인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단순 노동 이주자, 결혼 이주자, 사업차 방문자, 관광객 등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계중국인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디어를 비롯한 사회에서 학습된 한국계중국인의 이미지가 동일로 18길이란 장소의 한국계중국인 상인을 동질 집단으로 규정하는 오류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국계중국인의 주변화가 로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한국계중국인은 한국사회에서 시민권자, 방문 노동자, 학생 등의 다양한 계층과 위치성을 통해 자신들의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가 주류사회가 허락한 곳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소 점유는 한국계중국인의 자발적인 이주와 정착 과정을 반영한다. 즉, 이주자로서 한국계중국인은 수동적인 존재로서 특정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작동시키면

서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형성은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유입을 가져오고 있으며, 광진구청에서는 중국음식문화거리의 조성 과 다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변의 쇼핑센터는 한국계중국인의 증가에 고무되고 있으며, 주변의 낙후된 주택지역은 한국계중국인의 거주 증가를 환영하고 있다. 이처럼, 거주 공간으로서 그리고 경제 공간으로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는 로컬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중국음식문화거리의 조성은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역 상인들은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이 지역 쇠퇴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계중국인을 주변화 시키려고 하는가? 로컬의 변화에서 왜 원주민 상인과 한국계중국인 상인은 갈등의 관계에 직면하게 되는가? 이는 이주자의 장소 점유가 단순히 주류사회의 주변화와 타자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층과 관련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글로벌화와 초국가적 이주를 자극하는 것은 다름 아닌 글로벌 자본의 영향이다.⁴⁾ 즉, 국제이주를 자극한 것은 자본과 지배계층인데, 실제 사회에서 이주자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계층에 속하는 원주민 상인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에 따른 원주민 상인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 이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포함과 배제 논리를 주변화 담론을 통해 살펴 보았다.

기존의 이주 연구는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로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주자에 의한 장소 점유와 로컬의 변화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0년대 접어들어 중국으로부터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이 증가하였고, 자양동의 동일로 18길을 따라 한국계중국인 상가의 확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음식문화거리는 가리봉-대림 일대와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새로운 한국계중국인의 공동체 공간으로 작동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주자는 주류사회의 이상과 맞지 않는 타자이기에 사회발전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는 한국계중국인 유입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나, 우리 주변으로의 한국계중국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음식문화거리 내 원주민 상인들로 하여금 한국계중국인을 위협하고, 비도덕적이고, 돈만을 생각하는 이방인으로 주변화 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은 안전한 공간을 위협한 공간으로 변모 시킬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정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인식된다. 특히, 한국계중국인의 유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원주민 상인들로부터 한국계중국인의 주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계중국인은 민족의 구성원이 아닌 이방인이자 외부인으로 타자화 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화에 의해 한국계중국인은 혈통에 의해서는 한국인이지만, 국적과 문화에 의해서는 중국인으로 범주화되고 있다.

이처럼 이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주변화는 이주자에 의한 로컬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음식문화거리는 과거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의 주요한 정체 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는 로컬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기보다는 한국계중국인의 유입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자 문

제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음식문화거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계중국인의 장소 점유에 따른 원주민 상인들의 한국계중국인 주변화와 지역쇠퇴 담론의 생성과 확대는 향후 우리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주자에 대한 타자화와 고정관념의 해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류 미디어에 의해 생성되는 이주자의 위험담론은 우리사회의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담론이 형성되는 상황과 맥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주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음식문화거리 내의 원주민 상가에 대한 조사에 의한 것으로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많은 한계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가 자양동 전체, 서울시 전체, 한국 전체의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인식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장소에 따라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원주민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고, 향후 한국계중국인의 사회적 신분과 위치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식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이주자의 장소 점유와 이주자의 포함과 배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주자의 관점에서 사회와 로컬의 변화를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

- 1)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을 법무부의 공식 용어인 '한국계중국인'이란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나, 본문의 인터뷰 내용에 나오는 조선족이란 말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2)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이용균, 2013). 첫째, 이주자는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동질적인 존재로 인식된

- 다. 둘째, 이주자의 초국가적 실체는 대도시 중심으로 설명되면서 로컬리티 수준에서 이주자의 특성이 간과된다. 셋째, 이주자의 특성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한다. 넷째, 한국가 내에서 특정 민족집단의 특성을 전체 이주자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3) 교육수준은 이주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41명의 원주민 상인 중 대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단지 4명에 불과하기에 교육수준에 따른 한국계중국인에 대한 인식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을 발견하기는 힘들었다.
- 4) 초국가적 이주의 상당 부분은 자본의 역할과 관련된다. 공장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근무 환경의 악화는 자본가 입장에서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어렵게 한다. 결국, 자본가의 요청에 의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이 이루어지는데, 자본가는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해외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면서 노동 착취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즉, 노동이주자의 활용은 국내 노동 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자본가에게 직면한 문제를 정부가 대신 해결해주는 결과에 해당한다. 결혼이주자의 유입과 가사도우미의 유입도 가부장제의 지속과 지배계층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지속이라는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며, 결국 신자유주의에 의한 경쟁의 심화가 농촌지역에 결혼 문제를 야기하고 해외로부터 가사도우미의 수입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구동희·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대운(=Tuan, Yi 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권은, 2010, “다문화 공간에는 누가 사는가: 다문화 공간을 둘러싼 갈등”, 정병호·송도영 엮음, 한국의 다문화 공간, 서울: 현암사, pp.217-240.
- 김민영·류연택, 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특성: 충청북도를 대상지역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pp.676-694.
- 김병조·김복수·서호철·오만석·은기수·강제훈·정미량·정재기·조동기, 2011, 한국의 다문화 상황과 사회통합,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
- 김이선·민무숙·홍기원·주유선, 2011,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화선, 2011, “연변 조선족 농촌 여성들의 한국바람”, 허라금(엮음),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서울: 한울, pp.129-143.
- 남영호·홍준기·이현재·곽노안·유승희·김승욱·김동우·박영균·정인숙 역, 2010, 초국적 도시이론: 지구화의 새로운 이해, 서울: 한울(=Smith, P., 2001, *Transnational Urbanism: Locating Globalization*, Malden: Blackwell).
- 류주현, 2012,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분포와 민족적 배경에 관한 소고: 베트남·필리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pp.71-85.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1년 9월호.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12년 9월호.
- 박경환, 2008, “소수자와 소수자 공간: 비판 다문화주의의 공간교육을 위한 제언”, 한국지리환경학회지 16(4), pp.297-310.
- 박경환·진종현, 2012, “다문화주의의 지리에서 인종 및 민족집단의 지리로 (1): 인종 및 민족집단에 대한 사회공간적 논의의 성찰”, 문화역사지리 24(3), pp.116-139.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16-634.
- 법무부, 2011,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 심승희 역, 2012, 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서울: 시그마프레스(=Cre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이민호, 2012, “소수자로서 중국 조선족의 이주사 및 정치·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정체성 변동”, 인문과학연구 30, pp.321-350.
- 이부미, 2011, “다문화 교육의 혼돈과 이해의 과정: 안산 ‘원곡동’ 현장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5), pp.103-127.
- 이영민·이용균·이현욱,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 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pp.103-116.
- 이영민·박경환 공역, 2010, 포스트식민주의 지리학, 서

- 을: 여이연(=Sharp, J., 2009, *Geography of Postcolonialism*, London: Sage).
- 이용균, 2013, “초국가적 이주 연구의 발전과 한계: 발생학적 이해와 미래 연구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pp.37-55.
- 이용균·이현옥, 2012, “이주자 공간의 지도화와 공간분포의 특성: 국적과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2(2), pp.59-74.
- 이용일, 2009, “트라스내셔널 전환과 새로운 역사적 이민 연구”, *서양사론* 103, pp.315-342.
- 이희은, 2011,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의 의미: 다문화주의를 넘어서는 미디어 이론의 필요성”, *한국방송학회(연)*, *한국사회 미디어와 소수자 문화정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45-79.
- 장희권 역, 2011, 소수에 대한 두려움: 분노의 지리학, 부산: 에코 리브르(=Appadural, A., 2006, *Fear of Small Numbers: An Essay on the Geography of Anger*,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정의철, 2011,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미디어: 소수자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 모색”, *한국방송학회(연)*, *한국사회 미디어와 소수자 문화정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p.282-323.
- 정현주, 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pp.295-314.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35-654.
- 최병두·임석희·안영진·박배균, 2010,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다문화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공간적 접근, 서울: 푸른길.
- 최병렬, 2009, “탈영토화된 공간에서의 다문화주의: 문체적 상황과 의미화 실천”, *사회이론, 봄/여름*, pp.47-78.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nderson, K., 1991, *Vancouver's Chinatown: Racial Discourse in Canada, 1875-1980*,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Anderson, J., 2010,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London: Routledge.
- Brickell, K. and Datta, A.(eds.), 2011, *Translocal Geographies: Spaces, Places, Connections*, Burlington: Ashgate.
- Dahlman, C., 2004, Diaspora, in Duncan, J., Johnston, N. and Schein, R.(eds.),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pp.485-498.
- Gielis, R., 2009, “A global sense of migrant places: towards a place perspective in the study of 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9(2), pp.271-287.
- Gilmartin, M., 2008, “Migration, identity and belonging”, *Geography Compass* 2(6), pp.1837-1853.
- Jackson, P., Crang, P. and Dwyer, C. (eds.), 2003, *Transnational Spaces*, London: Routledge.
- McEwan, C., 2004, Transnationalism, in Duncan, J., Johnston, N. & Schein, R. (eds.),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pp.499-512.
- Mitchell, M., 2000, Networks of ethnicity, in Sheppard, E. and Barnes, T. (eds.),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Malden, Blackwell Publishers, pp.392-408.
- Samers, M., 2010, *Migration*, London: Routledge.
- Schiller, N. and Çağlar, A., 2009, “Towards a comparative theory of locality in migration studies: migrant incorporation and city scal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2), pp.177-202.
- Vertovec, S., 2009, *Transnationalism*, London: Routledge.
- 교신: 이용균,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연구교수, 전화: 02-3277-3744, 이메일: yonggyunlee@ewha.ac.kr
- Correspondence: Yong Gyun Lee,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744, E-mail: yonggyunlee@ewha.ac.kr

최초투고일 2013년 4월 20일

수정일 2013년 5월 10일

최종접수일 2013년 5월 15일